

어린이도서관건립에관한청원

소개의원 이용수

기획행정위원회

청 원 서

김희철 구미시정실련(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 외
12,547명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어렵이 도서관 건립 청원서’를 접수하오니, 시의원 여러분들의 흔쾌한 동참과 격려를 바랍니다.

청원 취지

(1)구미공단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인 대기업들은 가뜰이나 불리한 물류 여건에다, 서울의 고급인력마저 교육과 문화의 취약함을 주된 이유로 내세우면서 구미공단 근무를 기피하는 데 따른 ‘고급인력 확보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일부에선 구미공단에 대한 중장기 신규투자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여론 역시 교육과 문화가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특히, 연초에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준 LG필립스LCD(주)의 대규모 신규역외투자계획 발표는, 격사회의 민·관 역량이 온 힘을 모아 외지 고급인력의 구미 기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미공단의 산업고도화와 미래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종을 울린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구미의 교육과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비경제적 투자도 4공단 분양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동등하다!”라는 반성적 교훈이 시민 모두에게 깊이 분명하게 각인되길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3)구미공단 산업고도화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IT(정보기술)산업 고급인

력의 평균연령과 구미시민의 평균연령이 같은 29세이므로, 이들의 자녀들인 초등학생·유치원생·어린이집원생을 교육의 중심에 놓는 전국 상위 수준의 〈어린이 교육도시〉를 만드는 게 구미교육문제 해법의 핵심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구미시의 초등학생·유치원생·어린이집원생은 53,850명으로서 중·고생 30,386명의 177%,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특히, 구미공단 최대 첨단산업 사업장인 삼성전자의 개발인력 813명의 평균연령과 자녀들 평균연령이 각각 29.9세, 5.7세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이번 청원에 1,330명이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대기업의 요구가 무엇임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5)따라서 ‘구미시의 최대 교육수요자’인 어린이들을 위해 구미시가 전국 두 번째 100억원 안팎 규모의 궁전 같은 공(시)립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어린이 교육에 대한 시의원·시장·시민들의 각별한 애정과 의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애들 교육시키기엔 구미시가 지방 도시 중에서 제일 낫다.”라는, 외지 고급인력으로부터의 깊은 신뢰와 높은 상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존 구미시민들의 교육환경개선 욕구를 대폭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의 일환입니다.

(6)이러한 근거를 이유로 ‘구미시 최대 교육수요자’인 초등학생·유치원생·어린이집원생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 건립 청원을 소개하오니, 시의원 여러분들의 흔쾌한 동참과 격려를 바랍니다.

2003년 6월 20일

김희철 구미경실련 집행위원장 외 12,547명